

더불어 숲이 되는



만덕사람들

2008년 12월

11·12월호

〈격월 발간〉

발행 · 편집 : 만덕사람들, 만덕종합사회복지관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전화 : 332-8004 | 후원 : 북구, 사상구 복지컨소시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cafe.daum.net/mandukpeople>

우리 동네 화가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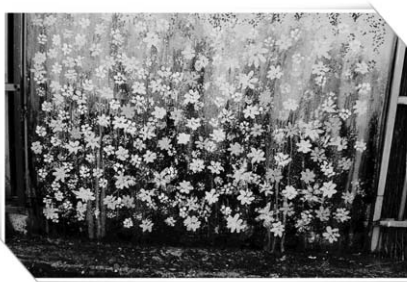


만덕1동에 거주하시는 화가 아저씨는 행복한 화가입니다. 화가 아저씨의 꿈은 말 그대로 화가입니다. 하지만 꿈을 향해가던 아저씨께서는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 후로는 말하기가 힘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화가 아저씨는 힘들게 땀을 흘려 그림을 완성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아저씨께 다른 곳에도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는지 여쭙었더니 “주변의 벽은 거의 다 그려서 그럴 때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려 달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만덕동을 위하여 멋진 그림을 그리시는 아저씨를 보시면 물 한잔과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힘과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저씨께 힘이 될 것입니다.

- 글 정유리(상학초등학교 6학년), 정미경(만덕중학교 2학년) -



맞벌이 가정 아동보호 아이시터와 함께 고민하세요

1. 서비스 지역 및 서비스 대상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0세~13세 아동
2. 서비스 대상 경제여건 및 가족형태
 - 경제여건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 가족형태 :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모자가정(미혼모), 부자가정, 이민자가정(새터민), 일반가정
3. 제공서비스 : 1:1 방문 또는 복합적 지원 서비스
(수유, 육아 지원, 위생관리, 기초학습지도, 숙제점검, 병원동행, 스케줄 관리 등)
4. 이용방법 및 이용료 문의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아이시터 사무국(김지미) T. 332-8004

☑ 만덕1동 새마을부녀회 북이박람회 대상 수상

만덕1동 새마을부녀회가 북이박람회에서 북구 13개 동 주민자치회의 활동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11월, 19일, 20일 이틀동안 문화빙상센터 일원에서는 2008 북이박람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만덕1동 부녀회는 특화사례 발표, 작품전시, 동아리 발표 등 3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만덕1동 부녀회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의 우리사회 적응력을 신장하기 위한 자매결연 맺기와 다양한 지원 활동 및 소외된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 등 특색있는 활동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 북부교육청 덕천중학교에 교육복지지원 센터 개소

우울증과 과잉행동장애 등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우리 지역 일선 학교에 만들어졌다. 부산 북부교육청은 최근 북구 덕천동 덕천중 영상학습관에 청소년 심리치료를 위한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아동 심리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우선 북부교육청 관내 90개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하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에게는 무료로 지원한다. 센터 개소에 앞서 북부교육청이 북구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지역 초등학생 328명과 중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생의 3.1%, 중학생의 1%가 상담과 심리치료 등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 만덕2동 환희교회 바자회 수익금 노인급식사업에 전달

만덕2동에 위치한 환희교회(담임목사 안영호)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바자회를 실시하고 그 수익금을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경로급식 사업에 전달했다. 수익금은 1,834,040원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소중한 자금으로 사용되게 된다.

☑ 등대학교 무지개언덕 노인요양센터에서 봉사활동 실시

북구청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대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구포에 소재해 있는 장선종합복지공동체 무지개언덕 노인요양센터로 봉사활동을 갔다. 무지개언덕 요양센터에는 50여명 정도의 노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등대학교 4, 5, 6학년 청소년들은 장기자랑과 간식을 준비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방문을 했다.

30여분 정도 준비한 장기자랑을 선보여 드리고 준비해간 간식을 직접 나누어 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도와드리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손이나 자녀분들을 보시러 가지 못하여 적적하신 노인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린 시간이었다.



등대학교 5학년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다.



등대학교 4학년이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08년 감사했습니다

아쉽게도 2008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이루셨나요? 2008년의 아쉬움 대신 활기차고 희망찬 2009년을 맞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만덕복지관에서는 지역에 외로운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을 따뜻하게 마감하고, 떠오르는 2009년을 뜻 깊게 시작하실 분들은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장애아동놀이터 ‘아이마루’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히 놀 수 있는 마루’란 뜻인 “아이마루”가 우리 동네 만덕복지관에 만들어졌다. 아이마루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핵심적인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실내 놀이시설을 갖추고 전문지도 교사를 배치한 놀이 공간이다. 이 공간은 장애아동가족교육, 비장애아동과의 통합 활동, 감각 놀이, 부모와 함께하는 신체활동 등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아동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시간은 매주 월~금(2/4주 토요일 이용가능),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애아동(5세~13세) 및 동반 비장애아동(5세~10세)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이마루” 놀이터를 설치하고 지난 12월 4일(목)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장애아동 학부모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치 한 포기씩 나눠먹는 재미, 사는 재미가 솔솔~~

한포기만 더 김장김치 나눔 활동 활발히 진행



우리 마을 곳곳에서 김장김치 나눔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11월 말 만덕성당에서는 우리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할 김치 400포기를 정성껏 담아 지역주민 80세대에 전달했다. 20여명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 가장 좋은 재료로 김장을 담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이 행사는 10여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 지난 12월 4일에는 만덕1동 새마을 부녀회는 회원 10여명이 만덕1동 지역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도 후원했다. 만덕2동 부녀회와 한국아쿠르트에서도 지역 이웃들을 위해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만덕복지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플러스원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도수경 사회복지사는 “플러스원은 집집마다 김장하실 때 한 포기만 더 담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업입니다. 김장김치를 나누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살맛나는 만덕동을 만드는 의미가 더 큼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플러스원 김장 나눔사업에는 각 종 단체에서 김장을 담그면서 추가로 마련해 주는 김치와 함께 6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내 어려운 가정 9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 할 수 있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노인들로 구성된 만덕복지관 노인대학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한 지역의 노인 15세대에 직접 김장을 담아 배달하는 등 최상의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맛있는 김치가 만덕동 곳곳에 배달되고 있다. 이 날 김장김치를 배달해 주신 이정임 할머니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매년 이렇게 김치를 담아 주겠다”며 “모두 모두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 푸른샘 공부방과 첫 만남

만덕동 그린코아 주민 김 지 연



2년전 문화의 집에서 어느날 최쌤이 나에게 “선생님 재미있는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보실래요?” 물어왔다. 나는 섣불리 “네” 라고 말하지 못했다~ 예전에 나였음 바로 “네”!!! 라고 말할 수 있었을텐데...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나지만 대학4학년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나를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 머뭇거리는 그런 나에게 최쌤은 “푸른샘”이라는 공부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로 착한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어느 날 푸른샘을 찾았다~첫만남... 너무 설레었다~ 내가 문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아이들과 선생들께서 나오셔서 나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뻘 얼떨결에하면서도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저녁식사 준비 중이었는데 음식을 하시는 표희쌤~ 상처리는 것을 도우는 아이들... 정말 가족같은, 보기에도 정말 행복해 보였다~ 저녁을 먹고 소개하는 시간... 아이들의 눈빛들이 어찌나 초롱초롱 빛이 나던지... 얼굴에는 미소가 한 가득~ ‘그래~!! 요즘에도 이런아이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푸른샘에서의 첫수업!!! 수업준비만 하고 찾아갔는데 내가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것 아닌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결국 내가 제일 자신있는 떡볶이!!! 음식만드는 것을 즐겁게 도와주는 아이들... 음식을 차리고... 밥을 뜨고... 수저를 놓는다... 보고만 있어도 흐뭇했다~ ~

아이들은 내 기분이 좋으라고 “진짜 맛있어요!!!” 이러면서 정말 맛있게 잘먹는다~ ~ 그 한마디 말에 난 정말 큰 행복을 느낀다~ ~

여전히 2년이 지난 오늘도 나는 화요일마다 아이들에게 부족하지만 맛있는 밥을 하고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하고... 2년전엔 단지 착하고 밝은 아이들이라고 생각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이만 어렸지 항상 자기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생할까 걱정하고 선생님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알아서 청소해 정리정돈에... 정말 아이들을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배우는게 더 많은 것 같다.

까~ ~ ~ 푸른샘에 오기전에 나는 정말 철없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했는데^^ 푸른샘이 나를 조금 어른이 되게 만드는 것 같고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행복이 느껴진다~ ~ 이런 작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인연... 이 인연의 끈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마음속으로 기도해본다~ ~ ~

생활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한 삶

부산시 북구 만덕2동 삼성아파트 주민 박 계 영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과외공부를 가르쳤었다. 과학책에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주요인은 가정에서 쓰는 합성세제라고 나와 있다. 수질오염을 줄이려 한다면 '가정에서 쓰는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가 정답이다. 우리 집은 친정 어머니 때부터 세탁기에 합성세제 대신 빨래비누를 사용해오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플라스틱 통에 비누 5개 정도와 물을 항상 넣어둔다. 그러면 비누는 항상 물결한 상태로 있게 된다. 빨래할 때에 비누 물결한 것을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물이 있는 곳에서 손으로 으개어 내리면 완전히 분해된다. 병약한 사람이 합성세제로 세탁한 옷을 입으면 피부가 가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래해서 입으면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괜찮다고 한다. 또 시장 갈 때에 시장바구니도 물론 가져가지만 여러 가지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오는 경우가 많다. 비닐봉지를 가정에서 쓰는 것 외에 잘 정리해 두었다가(더러운 것은 씻어 말려서) 시장 갈 때에 도로 가져가 내가 사는 물건들을 담아온다. 그러면 비닐봉지 1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도 좋아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을 보는 주부들이 양손에 비닐봉지 여러 개를 들고 시장보고 오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다. 자기 몸 귀중한 줄 알면 '불필요한 쓰레기 알아서 완전히 없애야' 하지 않을까?

방과후 공동체교실 푸른샘



● 푸른샘을 응원해 주세요!!

“푸른샘”은 2000년 5월에 대학생과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정부의 보조없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많은 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푸른샘”이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풀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푸른샘”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밝게 웃는 얼굴입니다. “푸른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푸른샘”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소중한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내일입니다.

■ 계좌번호

- 농협 : 121036-56-099017 푸른샘 김경준
- 부산은행 : 106-01-004696-0 푸른샘 김경준

■ 푸른샘으로 오는 길

- 전화 : 051-342-4682, 010-8229-5687
-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3동 759-8번지 1층 '푸른샘공부방'
- 홈페이지 : <http://www.cyworld.com/3424682>

● “함께 할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진흙탕으로 탁한 연못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은 연못으로 졸졸졸 흘러들어오는 맑은 물줄기 때문이듯,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을 만들어갈 맑은 물줄기, 그 첫 물방울이 “푸른샘” 물방울입니다.

아이들과 푸른샘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함께 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찾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가슴속에 쌓일 '사랑과 보람, 그리고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 3동 759-8번지 1층 푸른샘 ☎ 342-4682

<http://www.cyworld.com/3424682>

희망의 사다리 운동 소식

“우리는 영미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영미(가명 16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영미는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폭력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졌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도 영미를 혼자 남겨 두고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마땅히 맘 붙일 곳이 없었던 영미는 몇 차례 자살 시도도 하고, 험한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되었지만 학비를 내지 못해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방황은 계속 이어졌고, 청소년 쉼터나 보호시설을 전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방황했던 시절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고, 몸은 힘들고 수입은 적지만 벌써 몇 개월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 돈으로는 친구집에 하숙비를 내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미는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영미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학원비와 교재비가 부담되어 최근 영미가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는 영미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려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이번 달에는 부산은행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운동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사다리 운동 후원 감사합니다.

- 이영수, 이필남, 권기형, 객관용, 신종국, 신은희, 객진영, 강기원, 류은경, 김선례, 온유조경, 등마루산악회, 김경화, 이승훈, 김자경, 도수경, 정신모, 홍선욱

* 희망의 사다리 운동 후원금은 우리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입니다.

♥ 희망의사다리운동 후원계좌 부산은행 227-01-001469-9(예금주 만덕복지관)

♥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해주세요. ☎ 332-8004

우리의 손으로 김장했어요!

할머니 ~

맛있게 드세요. ^^

등대학교 청소년들이
옹기종기 모여
김장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 2동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대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김장을 했다.

등대학교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 직접 김장을 하고 홀로어르신들의 가정에 배달을 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몸이 불편하셔서 김장을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몇 포기이지만 소중하고 감사한 김치였다. 참여한 청소년들도 스스로가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고 열심히 김장을 하고 배달을 했다.

할머니들께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셨다.

청소년들은 할머니와 이야기도 나누고, 어깨도 주물러드렸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와야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등대학교 최 현 경 선생님 -

우리 동네 백양산을 등반해 보았습니다

만덕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백양산’ 인근 초등학생들의 대표적인 소풍장소인 ‘백양산’은 산새가 그리 험하지 않고, 등산로가 잘 형성되어 있어, 만덕1, 2, 3동 주민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이다.

산을 10분정도 올라가다보면, 각 등산로마다 ‘약수터’와 ‘체육공간’이 있다. 그 곳을 지나쳐 10분 정도 올라가다보면, [만남의 광장]이라는 곳이 나온다. 이 곳에는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곳곳에 벙커가 파여져 있는데, 요즘 같이 매서운 바람이 불 때 그 안으로 들어가 각자 싸운 간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답소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만들기 작품을 전시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해놓았다.

백양산은 사직동, 신라대, 어린이 대공원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안내판도 잘 되어 있어서, 찾아가기가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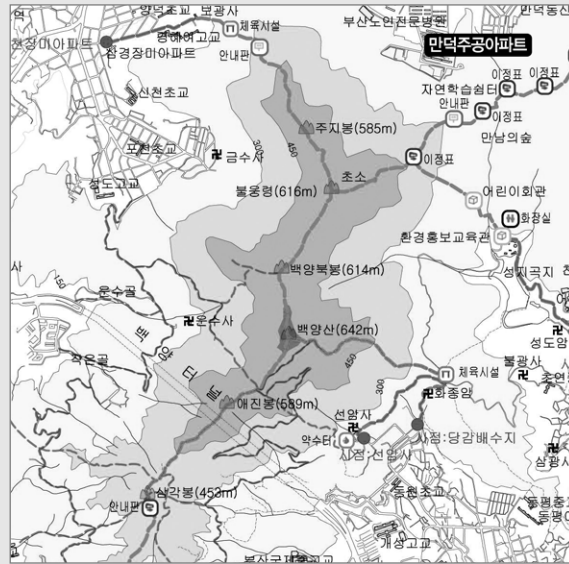
다.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에 나무계단을 만들어 놓아서, 미끄러짐을 방지해 놓기도 했다.

백양산을 등반할 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끼리도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위에 조금 미끄럽습니다”라는 말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정이 훨씬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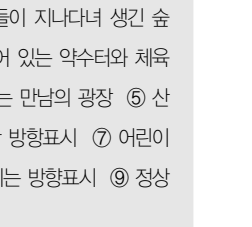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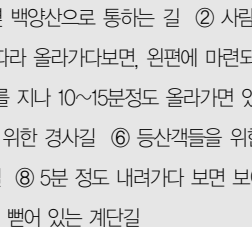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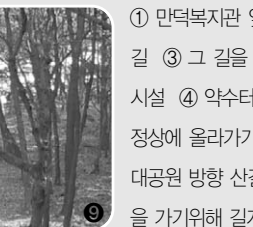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데 운동인 것 같다. 그리고 등산을 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어릴 때 많이 갔잖아” “힘해서 싫다” 등등 핑계가 많은데 백양산의 경우 남녀노소 상관없이 등산할 수 있게, 등산로도 잘 되어 있고 쉬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주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백양산을 등산 해보는 건 어떨지~?

- 취재 김 자 경(만덕3동 주민) -



※ 만덕주공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백양산 등산로



① 만덕복지관 옆 백양산으로 통하는 길 ② 사람들이 지나다녀 생긴 숲길 ③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왼편에 마련되어 있는 약수터와 체육시설 ④ 약수터를 지나 10~15분정도 올라가면 있는 만남의 광장 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경사길 ⑥ 등산객들을 위한 방향표시 ⑦ 어린이 대공원 방향 산길 ⑧ 5분 정도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방향표시 ⑨ 정상에 가기위해 길게 뻗어 있는 계단길

연극 놀이로 만나는 “재미있는 미술전”



민주공원에서는 다섯 가지 전시 주제를 연극적인 생각과 방법들로서 표현해보고 드라마 상황 속에서 경험해 본 후에 미술적 활동으로 생각과 느낌을 마무리하는 재미 있는 미술전을 개최합니다. 연극놀이 → 전시 관람이 → 창조적 드라마 활동이 → 미술적인 방법의 표현 활동 등을 통해 재미있게 미술을 만나봅니다.

- ▶ 일 시 : 12월 20일, 27일(토)
저학년(1~2학년) 14:00~15:40/고학년(3~5학년) 16:00~17:50
- ▶ 장 소 : 민주공원 소극장, 기획전시실
- ▶ 모집인원 : 각 시간별 20명(총80명) - 예약 필수
- ▶ 문 의 : 709-7418

www.bsnet.or.kr

어려울때 힘이 되는 북구, 사상구 복지 컨소시엄

북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아동,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각종 사회복지 문제를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에서 실시한 2006 테마기획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북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북구, 사상구 22개 기관(부산 북구, 사상구 지역 13개 복지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북부교육청, 북구청, 사상구청, 부산일보사, 한진중공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전화연락 바랍니다.

- ▶ 대표 전화 : 888-8888
- ▶ 만덕복지관 : 332-8004

후원 :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 새해 해맞이 축제!!

- 행사내용 · 제야행사 : 시민의 중 타종식(용두산공원)
 - 일출행사 : 기축년(己丑)해맞이(해운대해수욕장)
 - 일 시 · 제야행사 : 2008. 12. 31 23시부터
 - 일출행사 : 2009. 1. 1 8시까지
- ※ 2009년은 부지런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소의 해입니다.



우리 동네 좋은 이웃 쿠켄하임 만덕점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정이 넘치는 쿠켄하임 과자점(사장 서길용)에서는 우리동네 아이들을 위해 만덕복지관과 남산정 복지관에 빵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 ▶ 주소 : 만덕3동 동원 상가 8-102호
- ▶ 전화 : 337-9552



★★광고를 받습니다.

마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실 분을 찾습니다. 5천원 이상의 작은 돈으로 주민들께 소중한 광고를 내실 수 있습니다. 광고료는 만덕사람들 신문 발간에 사용됩니다. 만덕사람들은 격월 3,000부가 배부됩니다. T. 332-8004

★★신문배부처를 찾습니다.

마을 소식지 만덕사람들을 배부해 주실 곳을 찾고 있습니다. T. 332-8004